

종합·해설

신당-민주 통합 '통합민주당'시대로

광주·전남 정치지형 변화

양강구도 재편... '巨與 대항마'로

대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극적인 통합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우세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됐던 총선 국면의 변화는 물론 광주·전남정치권의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 성사 배경=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나 통합에 실패했던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통합에 성공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통합 무산=총선 공멸'이라는 위기감을 공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민심의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압력은 이번 통합 성사에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4·9 총선을 58일 앞둔 11일 국회에서 통합선언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각 정파·민주당까지 가세 '공천 대혼전'

뒤바뀐 수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탄생은 지난해 말 민주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에 걸라진 체 대선을 치러야 했던 중도진보진영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단일대오를 형성하게 됐다

즉,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양대 정당이 통합민주당으로 통합됨에 따라 '호남 표심'이 움직이며 기존 지지층을 재결집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의외의 선전을 펼칠 것이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구도=지난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이후 분열과 갈등을 거듭했던 지역 정치권은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18대 총선 공천 결과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공천 티격태격 따내기 위한 경쟁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신당 내부의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까지 합세하면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은 "통합 협상에서 공천 지분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으며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적어도 3~4명 정도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공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민주 재결합하기까지 합의 문턱까지 갔다 번번히 좌절 설연휴 조율 4년5개월만의 통합

대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11일 통합은 지난 2003년 9월20일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내 신당파가 '국민참여통합신당'으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옛 민주당이 공식 분당된 뒤로 4년5개월만이다.

양당은 지난해 벌여온 대통합 및 대선과정을 거치며 두 차례 통합협상을 진행했으나 통합노선상의 이견과 지분 등 이해관계 문제로 협상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대선 문턱에서 좌절됐던 양당의 통합 협상이 공식 재개된 것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설 연휴 전 통합'을 공개제안하면서부터.

앞서 지난달 10일 신당이 손학규 체제를 출범시킨 직후부터 신당 김원기 의원과 신계륜 사무총장, 민주당 박상천 대표 등이 몇 차례 접촉을 갖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였다. 이후 추가 실무접촉을 거쳐 10일 박 대표와 박 대표가 만나 통합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곧이어 11일 아침 양자가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막판 조율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가 '균형있는 공천'이란 표현을 합의서에 넣을 것을 제안하자 손 대표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또 결렬

해수부·여성부 이견... 각료없는 정부 출범 가능성

대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4차 '6자 협상'을 가졌으나,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이견결집에 실패했다.

특히 양당은 향후 협상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져 당내간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의마저 불투명해 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조각작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 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25일께 총리 인준과 함께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새 정부 첫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가망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이 협상시한이었다. 여야 협상결렬로 조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6차 협상이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6인 회담은 양측의 의견을

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로 정했던 설 연휴 전 통합은 일단 좌초됐다.

하지만, 양당은 설 연휴 중 물밑 작업을 벌여두며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다. 특히 신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최고위원,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가 막후에서 부주하게 움직이며 거중 조정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협상의 돌파구는 박 대표가 연휴 마지막날인 8일 선거권이 손 대표 한 사람만 법적 대표로 등록하자는 신당 입장을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추가 실무접촉을 거쳐 10일 박 대표와 박 대표가 만나 통합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곧이어 11일 아침 양자가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막판 조율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가 '균형있는 공천'이란 표현을 합의서에 넣을 것을 제안하자 손 대표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혀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며 "(회담의) 추후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대변인과 함께 공동 브리핑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 아예 불참했다.

이날 협상에는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및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상에서 협상 쟁점인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의 존치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협상은 1시간만에 끝났다.

신당은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은 양보할 수 없는 '협상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통일부 존치를 양보한만큼 신당측도 새정부 출범을 위해 나머지 부처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 한나라당 견제 시대적 요구"

통합 주역 최인기 원내대표

"총선을 앞두고 중도개혁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호남 민심의 열망이 이번 통합 타결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반납하고 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나서 통합을 마무리 지은 최인기(사진) 원내대표는 "그동안 두 번의 통합 협상이 무산되면서 말 못할 마음 고생이 많았다"며 "이번 통합 협상도 무산되면 정치를 그만둔다는 각오로 협상에 나서게 됐지만 결국 극적인 타결이 이뤄져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통합이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대통합민주당



당에 합류하지 왜 민주당에 남아있느냐고 조소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호남과 함께 성장한 민주당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끝까지 통합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민주당에 남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정당간의 통합이 아닌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는 이번 총선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순형 의원 자유선진당 입당

조순형 의원(서울 성북을·사진)이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에 11일 입당했다.

조 의원은 이날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으로 이 총재를 찾아 입당 서류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유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선진당의 창당취지와 정신에 공감한다"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총선 압승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 "정당적 민주국가라면 이러한 불균형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는 만큼 거대 여당을 비판,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선진당만이 한나라당의



독선·독주를 막고 잘못된 부수의 길로 가는 것을 견제할 건전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당의 총선 승리와 관련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면서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4년 전 출마한 대구에 비해) 훨씬 가깝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6선의 조 의원은 2004년 3월 민주당 대표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현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주도했으며 같은 해 4월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에 휩쓸려 낙선했지만 2006년 7월 성북을 보선에서 재기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의료안내. A large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in Gwangju, listing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with their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header with sunflowers and the slogan 'Beautiful medical culture, connecting the best medical services to create a healthy local society'.